

예술성과 대중성 갖춘 '산소같은' 만화

오세영·이희재·주완수·김상택·박재동 등 만화작품집 줄이어

임화인

만화평론가

만화의 예술성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은 이제 부질없는 일이다. 그만큼 만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연출하고 있다. 만화라는 스펙트럼의 중심에 예술적 감동과 오락적 기능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 양쪽편에 교육적 기능과 광고 등의 상업적 역할 또한 존재한다. 만화는 이제 눈으로 숨쉬는 공기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대중의 공감대에 근거

최근 발간되는 출판만화는 이러한 만화계의 현실과 만화를 예술로서 수용하는 대중의 폭넓은 공감대에 근거하고 있다. 출판만화는 대체로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창작만화집이고 다른 하나는 시사만화 모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대중성과 예술성의 화해로운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한길로 모아진다. 출판만화는 대본소용 만화가 갖는 조잡한 인쇄상태나 저열한 내용진가를 뛰어넘는 만화의 고급화, 품격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당연히 만화의 예술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독자층과의 만남이라는 대중성과도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만화 전문출판사라는 어려운 길을 개척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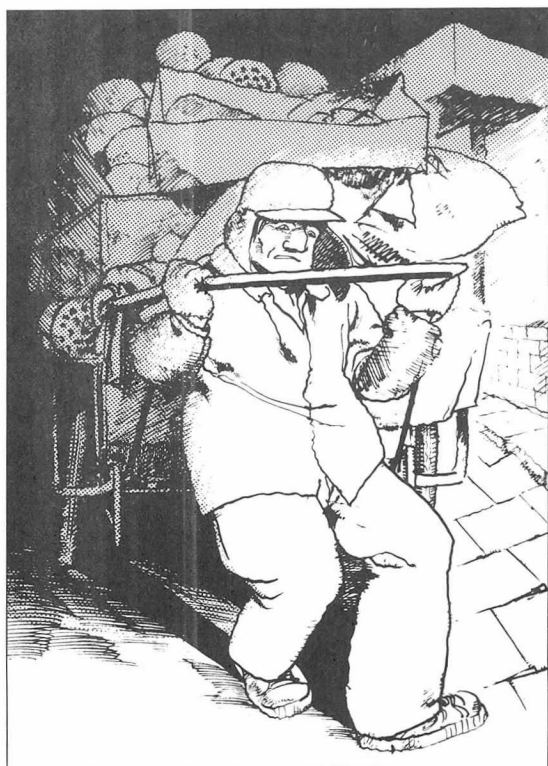
기로 마음먹은 글논그림밭에서 펴낸 《부자의 그림일기》(오세영), 《간판스타》(이희재), 《기억상실》(주완수) 등이 전자의 좋은 예라면 《10센티 정치》(김상택), 《제역공화국》(박재동) 등은 후자의 예가 되겠다.

오세영과 이희재는 한국만화계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들이다. 만화잡지를 통해 드문드문 발표되던 그들의 단편만화는 만화매니아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으며 '작가주의' 만화가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했다. 만화공장의 사장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작품 구상에서부터 완성까지 투철한 장인정신을 발휘해 작품을 완벽하게 장악하곤 한다. 이러한 작가정신의 결정체가 《부자의 그림일기》와 《간판스타》이다.

한국만화계의 컬트작가라는 세간의 총평답게 오세영은 《부자의 그림일기》를 온통 '서늘한' 색상으로 채색하고 있다. 서늘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오세영의 냉정한 시선임에 틀림없다. 그의 시선에 포착되는 서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곧바로 만화의 주제가 된다. 〈고살을 지키는 아이〉가 피폐한 농촌의 막연한 도시입성을 한쪽의 수채화처럼 묘사하고 있다면, 〈짜! 짜! 짜! 짜! 탕〉은 80년 광주항쟁을 관찰자적 시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화는 이제 눈으로 숨쉬는 공기같은 존재다. 최근 발간되는 출판만화는 만화계의 현실과 예술로서의 수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본소용 만화의 조잡함과 저열함을 뛰어넘는 고급화 품격화는 만화의 예술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중성과도 어울리게 된다.

이희재
《간판스타》의
《새벽길》 중 한 장면.



이러한 서늘한 주제들이 오세영 특유의 실험적 기법들과 화해롭게 만날 때, 그는 한국만화계의 컬트작가라는 평판에 훌륭하게 값하게 된다. 현대인의 위선적이고 속물화된 삶을 그려낸 〈목론(目論)〉이나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세계와 겹쳐낸 〈탈출〉같은 작품은 몇마디의 의성어와 사실적인 묘사만으로 현대사회의 병폐를 극명하게 드러내 우리를 충격 속에 빠뜨린다.

오세영 만화가 갖는 '서늘함'의 맞은편에서 이희재의 《간판》은 따뜻한 삶의 모닥불을 지피고 있다. 인물의 표정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오세영의 그림체에 비해 이희재의 그림체는 자유스러운 떨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자유스러운 떨림은 이희재가 그려내는 치열한 세상살이의 거친 모습들을 결과적으로 따뜻하게 이끌고 희망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희재의 단편 중에서 〈새벽길〉은 절망적인 삶을 이겨내는 한 청소년 부부의 실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내 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걸작이다. 청소년 박만서씨의 거듭되는 불행을 한 만화가의 관찰자적 시점으로 그려낸 〈새벽길〉은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무거운 삶의 모습 밑에 희망의 단서를 슬쩍 끼워놓음으로써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는 전언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반전의 기법은 《간판스타》에서 동촌리 간판스타 경숙이 사실은 카페 동백섬의 간판스타 진보라라는 충격적인 전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세영과 이희재는 서늘함과 따뜻함이라는 상반된 그림체와 기법을 사용해 만화를 창작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쾌락 쪽에 절대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뒤틀린 세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만화라는 표현양식을 통해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분석가이자 철학자인 셈이다.

《보통고릴라》를 등장시켜 정치판을 비꼬던 풍자만화가 주완수가 4년만에 발표하는 《기억상실》은 '만화 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 우리들의 눈꼬리를 잡아 끈다. 주완수는 〈화가였던 한 만화가의 변명〉이라는 글을 통해 《기억상실》이 '이 시대 소시민의 풍속도'이며, 그 풍속도의 가치체계는 '진

보성'이라고 규정한다. 주완수는 단행본 출판만화의 활성화만이 일본만화의 침투를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일찍이 깨닫고 (?), 그 스스로가 3년 이상의 긴 창작과정을 거쳐 《기억상실》을 출산했다. 산고의 고통을 컸던 만큼 그 옥동자 《기억상실》은 맑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주완수는 한쪽(page)만화라는 형식에 원시인과 여우를 등장시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성욕과 식욕, 권력욕을 드러내기도 하고, 한칸 만평의 공간 속에서 현실의 엇갈린 대화코드와 모순들을 파헤치기도 한다.

정책 차원의 지원 절실

박재동의 《제역공화국》(한겨레 출판부)과 김상택의 《10센티 정치》(경향신문사)는 각각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연재됐던 만평을 모아놓은 만화집이다. 박재동과 김상택은 신세대 만평작가로서 이미 상당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화가이다. 《제역공화국》은 기존의 박재동 만평모음과는 달리 회극작가 엄인희의 적절한 해설을 가미함으로써 한칸만평의 풍자공간을 역사를 기록하는 사서(史書)의 위치로 격상시키고 있다.

박재동의 그림체는 명랑만화의 단순함을 빼어놓아 있다. 그래서 그의 풍자공간은 밝고 친근하고 우스꽝스럽다. 반면 김상택의 그림체는 소나기가 내리기 전의 어두운 먹구름을 연상시킨다. 김상택의 예리한 펜은 정치권의 뒤죽박죽한 꼴불견을 시원하게 해부해내 많은 독자들의 아침을 경쾌하게 하곤 한다. 이러한 뛰어난 만평 작가들의 작품집이 속속 출간되는 것은 우리 만화 발전에 또다른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

단행본 출판만화의 활성화는 만화가들을 대본소리는 상업적 유통구조로부터 독립시켜 진정한 창작의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유일한 출구이다. 최근 발간된 단행본 만화들이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예술성과 대중적 옹호는 이런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우리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새로운 시장구조를 건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만화의 예술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만화의 고부가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